

### 거침없이 도를 굴린 대자유인

## 경봉 스님 생애 소설로

‘정진을 쉬지 않던 그는 36살이 되던 해 겨울 갑자기 벽이 무너지듯 시아가 특 트이면서 오묘한 일련상만이 남는 경지를 체험했다. 그래도 쉬지 않고 정진한지 20여일 뒤 새벽 두시반 문틈을 파고든 바람에 촛불이 ‘파파파’ 소리를 내며 춤추는 모습을 본 순간 역경의 의문이 풀려 버렸다.’

대도를 성취한 후 전국에서 찾아온 선승들을 지도하며 선종을 크게 떨친 경봉(鏡峰) 스님(사진). 한국 근현대사에 큰 획을 그은 선지식인 경봉 스님의 생애와 사상을 본격적으로 담아낸 최초의 장편소설 <아반삼경에 촛불춤을 추어라>는 수행자의 틀에 얽매이지 않고 거침없이 도를 굴린 대자유인으로 언제나 청량하고 겸손한 생활로 일관한 경봉 스님에 대한 제반지식이 담겨 있다. 또 선이 무엇인지, 멧들이 지게 사는 삶이 무엇인지, 인생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준다.

이 소설은 경봉 스님이 선방에서 수행하는 것부터 깨달음을 이룬 후 대중들에게 선종을 크게 떨친 이야기로 전개된다.

23살에 통도사에서 출가한 경봉 스님은 스승들께 도망쳐 해인사 선방에 찾아가다. 스님은 졸음과 망상이 들 때마다 허벅지에 피가 나도록 못으로 찌고 계곡에서 얼음을 가져와 입에 물었다. 그리고 기둥에 머리를 박아 이마에 피가 절절 흘러내리기도 했다. 그래도 집중이 안될 때는 뒷산에 올라가 엉엉 소리내 울었다. 처절한 싸움이었다.

스님은 82세부터 세수 91세로 열반하기 전까지 매주 일요일 정기법회를 열어 법상에 올랐다. 스님의 법문을 듣는 청법자는 언제나 1000여명을 밀도는 일이 없었고, 대다수의 선사들이 중국의 조사어록이나 염송 등에서 차용해 실하는 것이 관례화되어 있던 당시 현실에서 법문이나 계승을 내림에 있어 언제나 ‘자기 목소리’를 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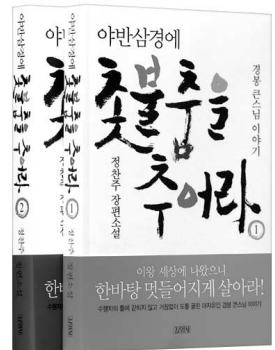
또 스님은 절밖에서도 법문을 마다하지 않았다. 장터에서 울긋불긋한 그림을 그려 주장자에 달고 요령을 흔들면 구경꾼들이 구름처럼 모여들었다. 스님은 구수하게 법문을 하다가도 지루할만 하면 찬을 하며 대중들과 호흡을 함께 했다.

이 소설의 저자 정찬주씨는 “경봉 스님은 지혜를 구하려는 사람들에게는 문수보살같은 분이었고, 희망을 가하려는 사람들에게는 관세음보살같은 분이었고, 편안을 얻으려는 사람들에게는 지장보살같은 분이셨으며, 극락암을 찾는 누구에게나 차별없이 맑고 향기로운 차 한 잔을 권하시던 사람냄새 풍기는 스님이었다”고 말했다.

김원우 기자 wkim@buddhapia.com



### 구도 위해 온몸 던진 처절한 수행과 선종 떨친 일화 ‘생생’



아반삼경에 촛불춤을 추어라 정찬주 지음 김영사 | 각권 9500원

머칠 동안 평평 눈이 쏟아져 길이 막힐 때  
오도 가도 못하고 혼자서 적막강산에 갇혀 있을 때  
나는 새삼스럽고 홀로 살아 있음을 누리면서  
승수한 내 자신이 되어  
둘레의 사물과 일체감을 나누다.  
그리고 눈이 멎어 달이 그 얼굴을 내보일 때  
월백 설백 천지백의 그 황홀한 경계에

나는 숨을 죽인다.  
살아 있는  
모든 이웃들이 다  
행복하라.  
래평하라.  
인락하라.

‘다 행복하라’ 중에서

## 행복을 내게 묻거든...

### 법정 스님 출가 50주년 기념 잠언집



살아 있는 것은 다 행복하라 류시화 엮음 조화로운 삶 | 9800원

살아있는 모든 것들의 행복을 기원하는 축시와 같은 법정 스님의 잠언집 <살아 있는 것은 다 행복하라>가 발간됐다.

법정 스님은 항상 행복의 비결을 말한다. ‘크게 버리는 사람만이 크게 얻을 수 있다. 하나가 필요할 때는 하나만 가져야지, 둘을 갖게 되면 그 소중함마저 잃는다. 행복의 비결은 필요한 것을 얼마나 갖고 있는가가 아니라, 불필요한 것에서 얼마나 자유로워져 있는가에 있다’고.

법정 스님의 출가 50년을 기념하는 의미로 기획된 이 책의 내용은 그동안 발표한 스님의 글과 법문들에서 130여편의 대표적인 내용을 뽑은 것이다.

책을 엮은 류시화씨는 다음과 같이 얘기한다. 산속 오두막에서 며칠 함께 지내던 어느날, 마침 보름달이 건너편 산 위로 떠올라 법정 스님과 나는 달을 보며 기도를 올렸다. 나중에 내가 스님에게 어떤 기도를 했느냐고 묻자, 그는 말했다. ‘살아있는 모든 것들이 다 행복하기를 기원했습니다.’

책은 또 무수유, 자유, 단순과 간소, 홀로 있음, 침묵, 진리,에 이르는 길과 인간존재에 대한 성찰로 채워진 글과 세계적인 사진작가 마이클 케나의 명상사진들로 장식돼 있다. 잠언집은 올 상반기중 중국 일본 대만 미국 등 5개국에서 출간될 예정이다.

## ‘암자에서의 하룻밤’ 설레네



암자를 찾아서 안직수 지음 운주사 | 1만1000원

왜 암자를 찾느냐고 물으면 대부분 ‘마음의 휴식을 찾고 싶어서’라고 답한다. 산새소리 일어나고, 풍경소리를 들으며 사잡을 청소하고, 인적이 끊어진 곳에 조용히 있는 것을 즐기기 위해서란다. 인연없는 사람이면 누구나 며칠 머물며 몸과 마음을 쉬 수 있는 곳이 암자이다.

일반인들이 찾아가 며칠 묵어도 괜찮은 암자 27곳이 책으로 묶여져 나왔다.

블로그인 안직수 기자가 펴낸 <암자를 찾아서>는 복잡하고 답답한 콘크리트 더미에서 벗어나 몸과 마음을 내려 놓고 쉬 수 있는 곳, 자신을 되돌아보고 참나를 찾을 수 있는 곳, 근심 걱정 흠을 털어 버리고 스님과 차 한잔 마실 수 있는 곳들을 담고 있다.

이 책에 소개된 27곳 암자는 ‘누구나 찾아와도 하룻밤 묵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 일일이 전화로 확인한 뒤 ‘저희도 힘든 사람들에게 기꺼이 방을 내 주겠다’ 마음을 낸 스님이 주석하는 곳이다.

대표적인 곳은 호남 제일의 비경 규봉암, 지리산의 소금강 구례 사성암, 바위벽봉이 위용인 창녕 법화사, 속리산 절경이 한 눈에 잡히는 중사자암, 대웅전에 부처님이 안모셔진 천안 선불사, 오세암의 활영지 제천 정방사, 조선조 왕족의 애환이 서린 삼남 만경암등이다.

이밖에도 주5일제를 맞아 주말여행으로 다녀올 수 있는 암자를 소개하고, 찾아가는 교통편과 암자 주변의 둘러볼 만한 곳 안내까지 빠지지 않고 있다. 부록으로 템플스테이 운영사찰 홈페이지와 주소, 전화번호도 함께 소개한다.

김원우 기자

## 티베트에서 인도로 생사의 여정

티베트에서 인도로 망명하려면 세상에서 가장 혹독한 여행을 해야한다. 그것은 5000~6000m의 히말라야를 넘어야 하는 것. 이 과정에서 수많은 티베트인들이 목숨을 잃거나 병을 얻는다.

여행가이자 에세이스트인 정희재씨는 인도여행중 티베트 친구로부터 이 생사의 여정에 대한 얘기를 듣고 그들의 고통에 함께 동참하기로 마음먹고 위험 천만한 티베트 여행을 시도한다.

정씨가 세운 티베트 여행의 원칙은 2가지. 즉 편하고 쉬운길만을 고집하지 않겠다는 것과 티베트를 침략해 유린하고 있는 것에 항의하기 위해 중국당국의 정책에 순순히 따르지 않는다는 것.

그러다 보니 정씨는 중국 당국의 여행 허가서도 없이 티베트 서부 오지로 들어가 수미산이라 불리는 카일라스 산을 순례한다.

마치 티베트인들처럼 여행을 하며 검문소를 지날 때마다 의자 바닥에 엎드려 숨을 죽이는 말굽자처럼 행동한다. 때로는 전기봉을 든 사원과 궁전의 경비를 맞은 중국군의 위협적인 태도에도 꺾이지 못한다.

자신들의 평화로운 나라를 침략하고 지도자를 망명하게 만든 중국정부도 응서하는 티베트인들에게 자비로운 마음을 느낀다. 그녀는 티베트와 카일라스 여행을 자기 자신과 삶의 행복을 느끼게 해준 순례라고 말한다.



나는 그곳에서 사랑을 배웠다 정희재 지음 섀터 | 1만2000원

### 새로나온 책

■ 대불정수능엄경(서울역사박물관) = 대불정수능엄경은 서울역사박물관이 간행한 소장유물자료집IV 권으로 나온 것이다.

<능엄경>이라고도 불리는 이 책은 중국 당나라 때 천축국의 발랄밀제 스님이 한문으로 번역하고, 송나라 때 계환 스님이 해설한 것을 조선시대 세종 15년에 10권 10책으로 간행한 것이다.

현재 서울역사박물관에 소장중인 <능엄경>은 2책 완결 목판본으로 조선초기에 간행된 같은 종류의 책들보다 시기가 앞서는 초간본으로 서지학적 가치가 높다. 특히 이 책에는 성균관대 명예교수인 천해봉 선생의 ‘성달생서 능엄경 초간본’ 논문도 실려있다.

### yosiamun.com 추천도서

- 마음의 고향에 돌아가야 하니 민족사, 나무북 스님, 8500원
- 선학강좌 이튼이철, 승선행원 스님, 1만5000원
- 영혼의 모음 섀터사, 법정 스님, 8500원
- 산은산 물은물이라도 정경각, 성철 스님, 4900원
- 불교가 좋다 동아사이, 기와이 하야오, 1만2000원

도서주문 (02)2004-8220

## 목조 건축



- ◆ 현대식건축 목조 + 빔
  - 제일 튼튼한집 150년이상 보장
  - 제일 저렴한 한옥집 평당 200만원대
- ◆ 목조건축
  - 육송,낙송,수입목 다량보유
  - 타사 건축업체와 견적서를 받아보셨습니까?
  - 목조건축을 350만원대에 시공합니다. 나무 시세에 따라 변동될수 있습니다.

충북 충주시 수안보면 사문리  
TEL 043)848-5311, 3  
H·P 016-773-8757

## 퇴행성 관절염

### <신물질 충격 요법>

약사 나경환 지음

지긋지긋한 관절염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관절, 허리 근육이 굳어있거나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몸이 뻣뻣하신 분, 고혈압, 심근경색, 뇌혈전, 동맥경화, 고지혈증, 불면증, 만성두통, 정맥류, 손 발저림, 혈액순환장애로 고생하시는 스님과 불자님들께 희소식을 전합니다

※ 전화주시면 책을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주문전화 02)3436-3206  
도서출판 건강한 세상

## 퇴행성관절염 · 류마티스 신경통 · 오십견 · 디스크

### 한방요법으로 치료한다-관신환

상기 관절염 등 증상을 중단, 완화, 치료할 수 있는 관신환(丸)

통상 관절염이란 관절에 염증성 변화가 생기는 모든 종류의 질환을 지칭하며 궁극적으로는 연골과 뼈를 손상시키며 심해지면 뼈와 뼈가 직접 부딪치거나 뼈가 기형화되기도 하면서 극심한 통증을 일으킵니다. 윤광환의원의 윤광환장은 수십년동안 퇴행성관절염 · 류마티스 · 신경통 · 오십견 · 디스크 등의 환자과 전정하면서 연구개발한 관신환(丸)을 처방하여 환자에게 임상 결과 80~90% 이상 호전반응이 나오며 관신환(丸)을 5~7일만 복용해도 부드러운 느낌을 받으며 그동안 어떤 관절염 약을 복용해도 못 느끼는 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전화상담 하거나 직접 방문하시어 상담을 하시고 약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함약은 한의사와 상담 후 처방됩니다.

### 관신환을 드실 분

- 계단을 오르내릴 때 무릎이 무리가 오시는 분
- 기타 퇴행성관절염 증상이 심하신 분
- 류마티스관절염때문에 고생하시는 분
- 위궤양때문에 관절염 약을 못드시는 분
- 수술후 후유증이나 회복이 잘 안되시는 분
- 교통사고 이후에 통증이 심하신 분
- 신경통, 류마티스, 오십견, 디스크 등이 아프신 분

윤광환의원 상담문의 080-598-9832

## 간(肝) 이

간지방간염

건강해야 장수할 수 있습니다.

지리산자락 신비의

### 참다슬기 농축액

도종 울담과 비경만한 자연산 참다슬기로 삶의 활력을 찾으세요. 지리산 자락 청정 지역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참다슬기만 가지고 전통재래식(가마솥) 방법으로 달인 참다슬기 농축액은 상쾌한 하루를 열어줍니다.

☐ 다슬기 농축액: 지리산 자락 계곡 맑은 물에서 채취한 참다슬기와 구슬알 다슬기를 죽은 것과 빈 껍데기를 골라내어 깨끗이 씻고 해금 시킨다. 다음 다슬기 10kg을 분쇄하여 가마솥에 넣고 전통방법으로 다슬기 속살이 녹을때까지 48시간을 더린다. 여기 마늘, 생강, 대추를 넣고 24시간을 더 달인다. 농축액은 60포 단위로 포장합니다.

☐ 다슬기 기름: 다슬기 15kg을 항아리에 넣고 왕겨 97마니를 덮은 뒤 왕겨에 불을 붙여 그 열로 다슬기가 명숙에 묻어둔 빈 항아리에 녹아 흘러내리게 합니다. 다슬기 기름을 만드는데 왕겨가 다 타들어 가기까지 꼬박 8~9일 걸립니다. 한달본은 1.8리터입니다.

『농축액을 개발하여 KBS TV “6시 내고향”에 방영된 이래로 “생방송 좋은아침” MBC TV “고향은 지금” 조선일보, 중앙일보에 소개 됨』

자료신청: (055) 963-9583 · 상담문의: (055) 355-5626  
신미를 통통 (민속농원)